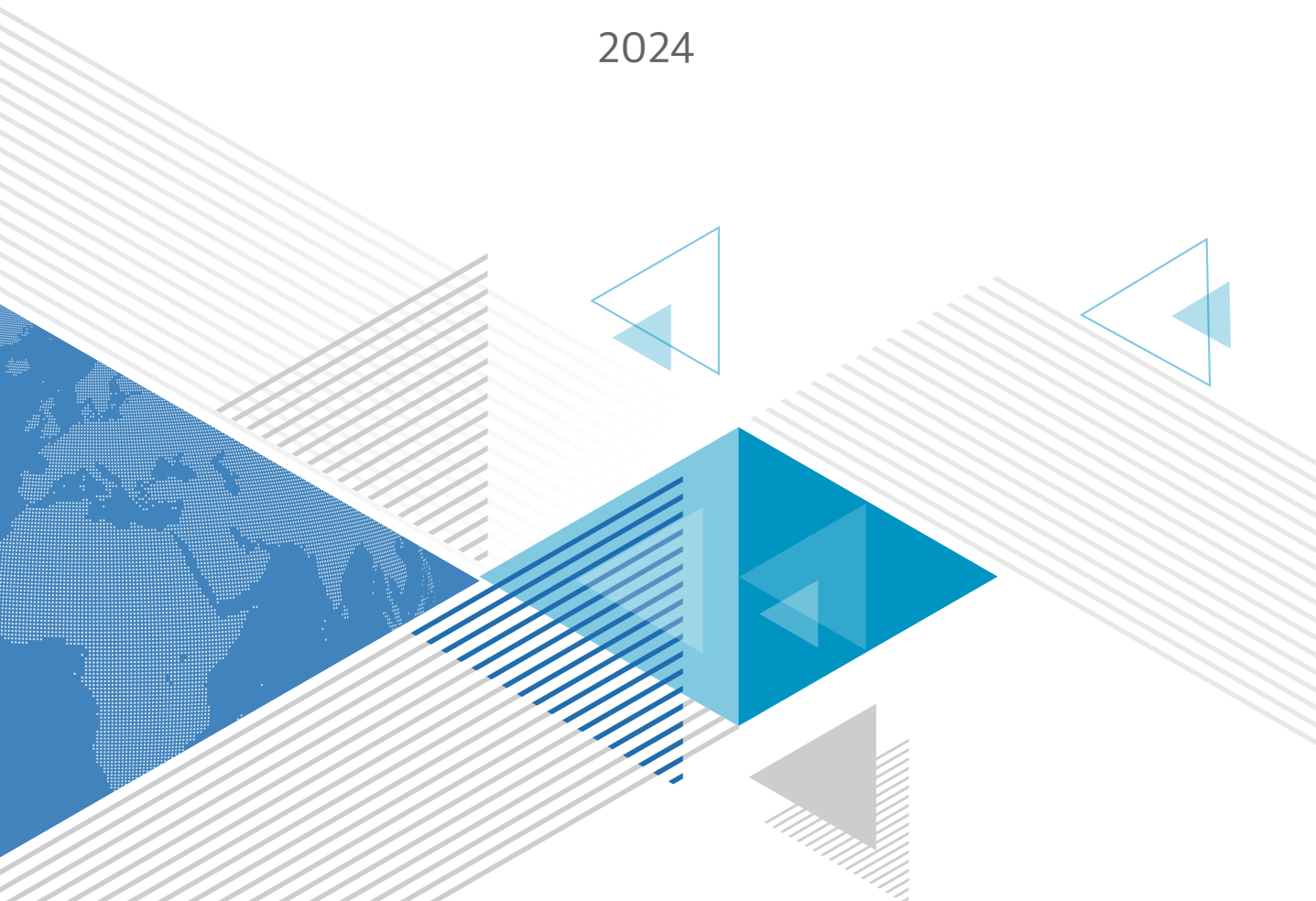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A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res:
Focusing on East Africa

2024



연구요약	iv
Summary	v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5
제2장 동아프리카 3개국 학교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현황	7
1. 케냐	9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9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13
2. 우간다	19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19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24
3. 탄자니아	30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30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34

제3장 협력 후보국의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39

1. 분석 개요	41
2. 국가 수준 타당성 분석 결과	43
가. 적절성	46
나. 일관성	48
3. 기관 수준 타당성 분석 결과	49
가. 적절성	49
나. 일관성	52
다. 효과성/영향력	52
라. 효율성	53
마. 지속가능성	54
바. 범분야 이슈	55

제4장 결론 및 제언 57

1. 타당성 검토 의견	59
가. 적절성	61
나. 일관성	61
다. 효과성/영향력	61
라. 효율성	62
마. 지속가능성	62

2. 협력 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63
가. 역량중심교육과정 실행 지원과의 효과적인 연계	63
나. 명확한 사업 수행 거버넌스 구축과 위상 확보	63
다.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64
라. 취약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65
마.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마련	65
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66
참고문헌	67
부 록	71
[부록 1] 인터뷰 요청 및 조사지	73
[부록 2] ADEA의 평화교육(ICQN on Peace Education, ICQN-PE) ·	83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추진하는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res, GCCs)’ 추진을 위한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현황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21년부터 협력국에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력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및 협력국의 상황과 수요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추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협력센터는 2021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2022년 필리핀, 캄보디아, 2023년 인도네시아, 라오스, 2024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총 8개국에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 협력센터는 협력국의 맥락을 고려해서 정부기관, 고등교육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협력기관에 속해 있지만, 공통적으로 (1) GCC 설립, (2) GCED 연수 프로그램 제공, (3) GCED 관련 지식 축적 및 공유, (4) 지역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 크게 4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그 대상을 서남아시아 국가로 확장시켰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는 향후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동일한 언어권(영어)에 위치하고 유네스코와의 협력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한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력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타당성 분석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과 범분야 이슈를 준거로 활용했으며,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 협력의 두 가지 층위로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3개국은 공통적으로 국가발전전략과 교육분야 발전 전략 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 내에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3개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및 교육분야 발전 전략에 부합하며, 세계시민교육 확산과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여부와 이행 현황, 아태교육원과의 협력 사업 추진 경험, 등 적절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3개국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케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케냐의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역량중심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명확한 사업 수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조직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취약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 다섯째,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Summar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feasibility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res (GCCs)' programme supported by the UNESCO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CEIU) in three East African countries (Kenya, Uganda, and Tanzania).
- Starting in 2021, the APCEIU has been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CCs in partner countries, there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in partner countries and establishing a platform for promoting the GCED based on the situations and needs of partner countries.
- The APCEIU ha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CCs in a total of 8 countries, starting with Thailand and Malaysia in 2021, the Philippines and Cambodia in 2022, Indonesia and Laos in 2023, and Nepal and Bangladesh in 2024.
- The GCCs belong to various cooperation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f the partner country, but they commonly carry out four major activities: (1) establishing the GCC, (2) providing GCED training programmes, (3) accumulating and sharing knowledge related to GCED, and (4) establishing and expand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 The GCCs programme has started with ASEAN countries, but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Southwest Asian countries, and the APCEIU plans to expand to African countries in the future.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reviewed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GCC in three East African countries (Kenya, Uganda, Tanzania) that are located in the same language zone (English)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s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 The feasi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evaluation criteria (relevance, consistency, effectiveness, impact, and sustainability) and cross-cutting issues, and was analyzed at two levels: country-level and agency-level cooperation.
-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ree East African countries, commonly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ies. In addition, they are introducing competency-based curricula to improve their education, and are reflecting elements related to GCED such as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urriculum. Therefore, the GCCs programme is in lin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education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three East African countr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pread and establishment of the GCED.
- However, after a thorough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in terms of relevance and consistency, such as the presence and status of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the GCED and experience in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with the APCEIU, it was found to be appropriate to promote this project first in Kenya.

-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related institutes in Kenya, KICD (Keny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is evaluated as an organization with the functions and experience to carry out both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er training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CC establishment project in Kenya.
-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link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education policies such as competency-based curriculum.
-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governance system and secure the status of the GCC center.
-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network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GCED and teacher training.
-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GCED programs that take vulnerable groups into consideration.
-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추진하는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res, GCCs)’ 추진을 위한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현황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대표적인 교육ODA 사업이며, ‘개도국의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를 통한 SDG4(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및 우리나라 주도 교육 의제의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24).
-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주도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성(세계시민의식) 함양을 SDG 4.7로 채택하였다(박환보 외, 2020).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세계 안에 다양한 문화 및 사람들과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교육이자 사회적 실천을 도모하는 교육이다. 특히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인권, 평화, 환경,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세계시민성 확산을 위한 교육 실천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세계시민교육의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국제포럼 및 세미나 등을 운영했으며, 교사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개도국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등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구축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UNESCO Clearing Hous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별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Global Citizenship Cooperation Centre, GCC)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도적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명석 외, 2021).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주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이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는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교육정책과 교과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이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지 교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특히 요구된다.
- 이러한 배경에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21년부터 협력국에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력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및 협력국의 상황과 수요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추진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2021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2022년 필리핀, 캄보디아, 2023년 인도네시아, 라오스, 2024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총 8개국에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였다. 협력센터는 협력국의 맥락을 고려해서 정부기관, 고등교육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협력기관에 속해 있지만, 공통적으로 (1) GCC 센터 설립, (2) GCED 연수 프로그램 제공, (3) GCED 관련 지식 축적 및 공유, (4) 지역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 크게 4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그 대상을 서남아시아 국가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의 지원과, 지속가능발전의제 5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와 부합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또한 2023년 아프리카 협력전략 마련,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교육협력포럼, 등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별, 또는 기관별 별도의 연구를 통해 협력센터 설립 후보기관 확정 및 MOU 체결 등 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유성상 외, 2022). 또한, 후보기관 확정 후에도 제도적 기반 마련

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권(영어)에 위치하고 교육분야 협력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한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력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첫째,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교육현황,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 현황은 주로 개별 국가의 국가발전전략,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정부가 최근에 발간한 공식문서를 활용했으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비롯한 개발기구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 둘째, 협력 대상 1개국을 선정한 후 해당 국가의 유관 기관 현황과 협력센터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사업후보국으로 선정된 케냐의 교육정책을 비롯해서 기관별 발간자료와 홈페이지의 정보를 활용해서 협력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에 대한 온/오프라인 면담과 서면조사를 통해, 협력기관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협력후보 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경험과 사업 의지 및 추진 환경을 파악하였다. 면담자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문가의 정보를 얻었으며,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면담자 정보는 다음의 <표 I-1>과 같으며, 면담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1〉 인터뷰 참여자

연번	성명	소속 기관
1	Prof. Peter Ngure	Ambassador,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enya to UNESCO
2	Ms. Jane Akinyi Njue	Keny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KICD)
3	Mr. Alphayo Acholla	KICD
4	Mr. Dominic Masyula Kioko	KICD
5	Mr. Amos Kibet Cheruiyot	Lake Bogoria Girls High School, Baringo County, Kenya

- 타당성 분석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오명석 외, 2021; 유성상 외, 2021; 유성상 외, 2022)에서 제안한 타당성 조사 항목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 협력의 두 가지 층위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2장

동아프리카 3개국 학교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현황

제2장 동아프리카 3개국 학교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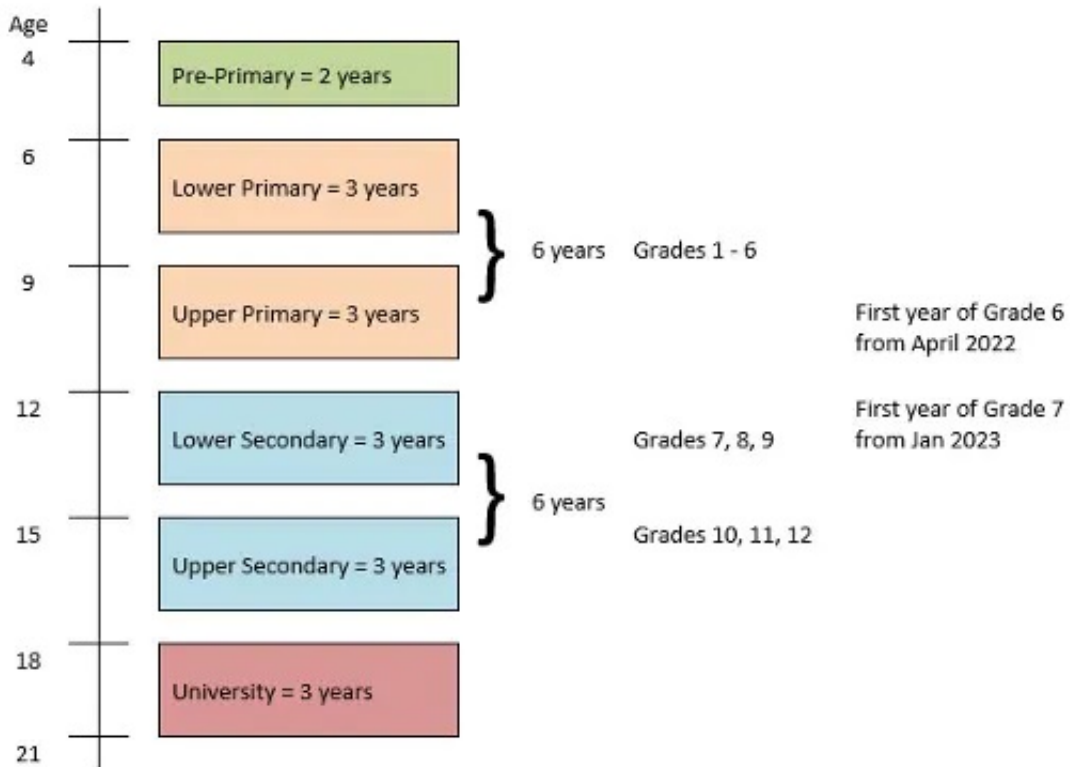
1. 케냐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 2017년 케냐는 8-4-4 학제(초등교육 8년, 중등교육 4년, 고등교육 4년)에서 2-6-6-3 학제(유아교육 2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3년 이상)로 전환하면서 역량기반교육과정(CBC)을 채택하였다. 기초교육은 연령 및 학교 단계에 따르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구성된다(Kenya MoE, 2024a). 이에 케냐 교육부는 기초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2-6-6-3 교육 구조를 채택하고 유치원에서 9학년까지 모든 학습 수준이 한 기관의 책임자 아래 하나의 기관으로 관리되는 포괄적인 학교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학습영역과 교육과정 설계를 지역, 지역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 ③ 공립 중등학교의 분류를 검토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자를 진로에 맞춰 선발하고 재배치한다.
- ④ CBC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용을 검토하고 학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묶음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제공한다.
- ⑤ 학교교육 및 학습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촉진한다.
- ⑥ 역량기반평가프레임워크(CBAF) 및 평가관리 체제를 검토한다.
- ⑦ CBC 구현에 있어 학교의 총체적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종교 및 도덕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⑧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훈련에서 진로지도,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 ⑨ KCSE(Kenya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평균 점수를 계산한다.
- ⑩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의무적 지역사회봉사학습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한다.
- ⑪ 승인된 교육 자료의 조달 및 배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한다.
- ⑫ 유아교육을 위한 기초 학습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 ⑬ 양질의 교육 제공에 기술을 활용한다.
- ⑭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환경 및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구현한다.
- ⑮ STEM 교육, 훈련 및 연구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 ⑯ 소셜미디어, 생활기술교육, 토착 지식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 교육은 ‘지식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체적이고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 사회적 응집력,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 이에 따른 교육 비전은 ‘변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훈련 및 연구’이며, 사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역량 기반의 공평한 학습자 중심 교육, 훈련 및 연구를 제공, 홍보 및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에 따라 교육부문의 국가적 목표는 ① 민족주의, 애국심의 역량을 육성하고 국가적 통합 촉진, ②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 경제적 개발 가속화, ③ 개인의 발전과 자기실현 촉진, ④ 건전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 촉진, ⑤ 사회적 평등과 책임 촉진, ⑥ 케냐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발전 촉진, ⑦ 국제적 감각 촉진 및 다른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육성, ⑧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촉진이다(Kenya MoE, 2024a).
- 케냐는 2017년 이전까지 8-4-4 학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7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인 역량기반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2-6-6-3 학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2-6-6-3 학제는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 대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1] 케냐의 학제

출처: Gichera, J. (2024, May 9)

- 2017년에 개편된 교육과정은 역량중심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CBC)으로 케냐의 국가개발 전략인 '비전2030'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역량(Competencies)', '인성(Character)', '창의성(Creativity)'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 중심 학습을 뛰어 넘어 학생의 전인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상상력 및 창의성, 의사소통 및 협업, 시민권,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및 평생학습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케냐의 역량기반교육과정은 학업 및 시험 중심의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7년 12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교사들에게 지정된 기관에서 추가적인 연수 또는 교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고 전국의 모든 중등학교에 교사들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역량중심교

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적절하게 훈련받은 교사의 부족, 공립학교의 부족, 교육에 적합한 교실수 부족, 학교 건물의 낙후, 보호자의 이해와 공의 및 지원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Gichera, J. ,2024, May 9).

- 케냐 교육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유치원의 수는 46,652개이며, 그 중에서 공립유치원 28,505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0년 현재 유치원에 등록된 어린이는 2,832,897명이고 이 중에서 22.5%의 어린이는 사립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다. 케냐 정부가 권고하는 유치원의 학생-교사 비율은 학습자 25명당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지만, 유치원 평균 학생-교사 비율은 43명이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각각 52명과 26명으로 조사되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어느 정도 표준에 가깝지만,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2배가 넘는 학생들을 1명의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nya MoE, 2020).
- 초등학교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1,464개교이며, 그중에서 공립초등학교는 23,368개교로 조사되었다. 2020년 현재 초등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는 10,076,828명이고 이 중에서 14.3%에 해당하는 1,441,223명의 학생이 사립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2020년 기준의 케냐 초등학교의 총등록율(Gross Enrolment Ratio)은 97.5%이며 남아가 98.8%, 여아가 96.2%로 나타났으며, 6학년까지 잔존율은 94.7%, 남아가 92.9%, 여아가 96.5%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총 교사수는 222,780명이며 이 중에서 70.2%의 교사가 초등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공립초등학교 교사 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7.2%, 석사학위소지자는 11.7%였으며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는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공립초등학교의 학생-교사 비율(PTR)은 41:1이었고, 이에 반해 사립초등학교의 비율이 23:1로 나타났다(Kenya MoE, 2020).
- 중등학교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0,390개교이며, 그중에서 공립중등학교는 9,100개교로 조사되었다. 2020년 현재 중등학교에 등록된 학생수는 3,569,279명이고 이중에서 약 4.7%에 해당하는 166,683명의 학생이 사립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2020년 기준의 케냐 중등학교의 총등록율(Gross Enrolment Ratio)은 76.5%이며 남아가 74.5%, 여아가 78.6%로 나타났으며, 졸업까지 잔존율은 96.4%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중등학교 총 교사수는 127,236명이며 이중에서 82.4%의 교사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공립중등학교 교사 중 교육학 학사학위소지자는 11.4%이며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는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 학생-교사 비율은 28:1이며 공립

중등학교의 경우 29:1,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14:1로 나타났다(Kenya MoE, 2020).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학습자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뿔셈은 29.34%, 길이, 질량 및 용량은 25.36%, 위치 및 방향 모양은 25.18%로 나타났다. 반면 절반 이상(52.51%)의 학습자가 나눗셈과 분수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취를 보였으며, 상당수의 학습자가 길이, 질량 및 용량(45.73%), 뿔셈(42.52%), 곱셈(41.97%)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취를 보이고 있었다(Kenya MoE, 2020).
- Ngatia, A(2024, Jan)는 케냐 교육의 도전 및 개선과제로 ① 많은 학생들이 10세가 되어도 나이에 맞는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며 수학 및 영어 시험에서 최소 통과 점수를 넘기는 학생이 매우 적어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 ② 학교 졸업률은 높지만, 교육의 실질적 학습 성과는 미흡하여 케냐에서 태어난 아이의 잠재 생산성의 55%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 ③ 케냐의 조기 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 ④ 성불평등이 심각하며, 여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 ⑤ 정책 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데이터 관리 시스템(EMIS)이 부족하여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⑥ 장애인, 저소득층, 소수 민족 등 다양한 소외 계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 성평등 촉진, 조기 교육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Ngatia, A., 2024, Jan).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1) 세계시민교육 현황

- 교육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교육, 훈련, 연구 및 혁신체제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교육, 훈련 및 연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을 국가 생산 시스템에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케냐 교육부는 국가교육전략인 ‘NATIONAL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2023-2027’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교육전략에서도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기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학교 화재와 학교 폭력, 약물 남용, 학생과 교육자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 잘못된 생활 습관, 사이버 도난 및 괴롭힘, 트롤링, 유해한 온라인 사이트 노출, 감염 및 전염성 질병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자 간의 안전, 보안 및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비상 사태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nya MoE, 2024b).

- 이처럼 국가교육전략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케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포용성, 형평성, 21세기역량 육성이라는 상위의 목표 아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교육전략에 언급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Kenya MoE, 2024b).

1. 역량기반교육과정(CBC)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 국가교육전략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시민권과 같은 기술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역량기반교육과정(CBC)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원칙에 맞춰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함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 연계

- 세계시민교육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와 연결되어 있기에, 국가교육전략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환경의식,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강조함

3. 국가교육전략의 목표에 세계시민교육 통합

- 세계시민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기후변화, 사회정의, 디지털문해와 같은 글로벌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공평하고 포괄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4.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와의 연계

- 범분야 이슈에서 세계시민성과 같은 시의적절한 이슈를 포함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이 케냐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전략 전반에 흐르는 범분야 이슈로 생각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분야 전략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특별히 2-6-6-3 학제는 핵심역량, 필수기술 및 평생학습의 습득과 가치 증진을 촉진하고, 교육에서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교육과정(CBC)이 그 중심에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 인류에게 필요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아가는 협동적 학습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체험적 교육을 촉진하고 관찰과 실천으로 배우는 경험적 학습 등으로 구성된 실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량 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역량중심평가가 주요 평가방법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역

량기반교육과정(CBC)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에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사고, 상상력, 창의성, 시민성, 학습방법 습득, 자기효능감 및 디지털문해가 포함되며(Kenya MoE, 2024b) 이러한 역량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기에 역량기반교육과정 전반에 범분야적으로 연계되는 세계시민교육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 케냐 교육부는 2018년에 ‘National Curriculum Policy’를 세우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케냐 국가교육과정정책(National Curriculum Policy) 문서에서는 학습자를 글로벌 경제체제를 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21세기의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관련되어 ‘National Curriculum Policy’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Kenya MoE, 2018).

1. 케냐 교육 비전과 사명과의 연관성

- 케냐 교육부의 교육 비전은 학습자에게 지속 가능한 세계적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가치관, 태도를 갖추게 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기에 케냐의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역량이 포함되어 있음

2. 지역 및 국제적 벤치마킹

- 이 정책은 특히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내에서 교육과정의 지역 및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세계적 교육기준에 국가교육과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기에 국제적 기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케냐 학습자가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됨

3. 21세기 기술과 세계 시민권

- 공평하고 포괄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4번은 케냐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되며, 이에 따라 케냐의 교육과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전수하는 등의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목표를 갖음

4. 역량기반커리큘럼(CBC)

- 이 정책은 실용적인 기술, 생활 기술, 창의성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역량기반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에 이와 같은 역량은 세계시민권을 지키고 지식기반경제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임

- 이처럼 ‘National Curriculum Policy’에는 세계시민교육이 케냐의 교육 개혁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케냐의 학습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대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nya MoE(2018)에 나타난 케냐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 목표
- ② 교육과정에서 Ubuntu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 및 상호 존중 강조
- ③ 학생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인식하도록 교육
- ④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교육 강화. 학생들이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 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며, 기후 변화 및 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키움
- 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및 협력과 같은 21세기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CBC)’의 도입
- ⑦ CBC는 학생들이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적 불평등 등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2) 교사교육 현황

- 지금까지 살펴 본 케냐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케냐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역할은 세계시민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교육자는 고귀한 직업이며 교사양성과 지속적인 교육 역량의 개발은 질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비교사로서 사범 교육을 받는 시기에 행해지는 교육과 현직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재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케냐에서 성공하려면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게 세계시민교육에 필수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KSA)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연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케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사임용시험의 종류는 ① 영유아교육(ECD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Education), ② 초등 교사(Primary Teacher Education, PTE), ③ 성인교육교사자격증(Teacher Certificate in Adult Education, TCAE), ④ 특수교육(Special Needs Education, SNE), ⑤ 사범디플로마(Diploma in Teacher Education, DTE)로 나뉘며, 이러한 교사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인증 또는 승인한 대학 및 기관이 제공하며 모든 교사교육 과정에는 교육실습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KNEC, 2018).
- 케냐에서 교사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교대(TTC, Teacher Training College)와 대학, 그리고 현직교사들의 재교육 등이 일어나는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교육(PTE, Primary Teacher Education) 시험은 케냐의 중등교육 자격시험인 KCSE(Kenya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마친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2년 간 과정을 치러야 하는 것을 말하며, 교생실습이 포함된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중등교육인증 KCSE에서 평균 C학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등학교 수준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는 대학(University) 또는 사범학교(DTE, Diploma in Teacher Education)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중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KCSE 최소 평균 C+ 학점과 관심 있는 두개 교과목에서 C+ 학점을 받아야 한다. 대학의 학위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은 3개월 실습을 포함하여 4년 동안의 교사교육을 받는 반면, 교사양성대학의 교육학학위에 등록하는 사람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게된다(Mwang'ombe, A. M., 2021).
-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케냐 TSC(Teachers Service Commission, 교사서비스위원회)는 2021년 9월에 의무교사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케냐 TSC의 교사규정집 제4부에서 교사의 임용 및 재교육 등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규정집 제42조에서는 모든 교사는 고용인이 요구하는 교육과정해석 및 구현에 대한 교사연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TSC는 다양한 교사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케냐에서의 교사연수과정은 초등에서 고등교육수준까지 사립 및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포함되며,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의 29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TSC는 교사연수과정 제공자로 4개 기관 즉, Kenyatta, Riara and Mount Kenya Universities, and the Kenya Educational Management Institute를 지정했다. 케냐의 교사연수는 KePTS(Kenya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교수역량표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TSC에서 개발한 것으로 교사의 교육서비스 제공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KePTS는 케냐 교사가 어떤 직업인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표준이며 케냐 교사가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학습자중심적접근방식) 수행 능력, 형성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Andafu, E. M., 2023).

- 케냐의 KePTS를 통해 케냐 교사들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 표준이 무엇인지 살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 케냐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역량표준(KePTS) 내용

Standard No. 1: Teacher Promotes Professionalism throughout their Career
Standard 2: Teacher ha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how to implement it.
Standard 3: Teacher has knowledge on assessment and reporting
Standard 4: Teacher Knows how to Create and Support Inclusive Education Practices
Standard 5: Teacher Knows and Promotes Comprehensive School Health and Safety
Standard 6: The Teacher has Knowledge of Financial Literacy Skills
Standard 7: The Teacher Knows and Promotes Instructional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

출처: Macharia, N. 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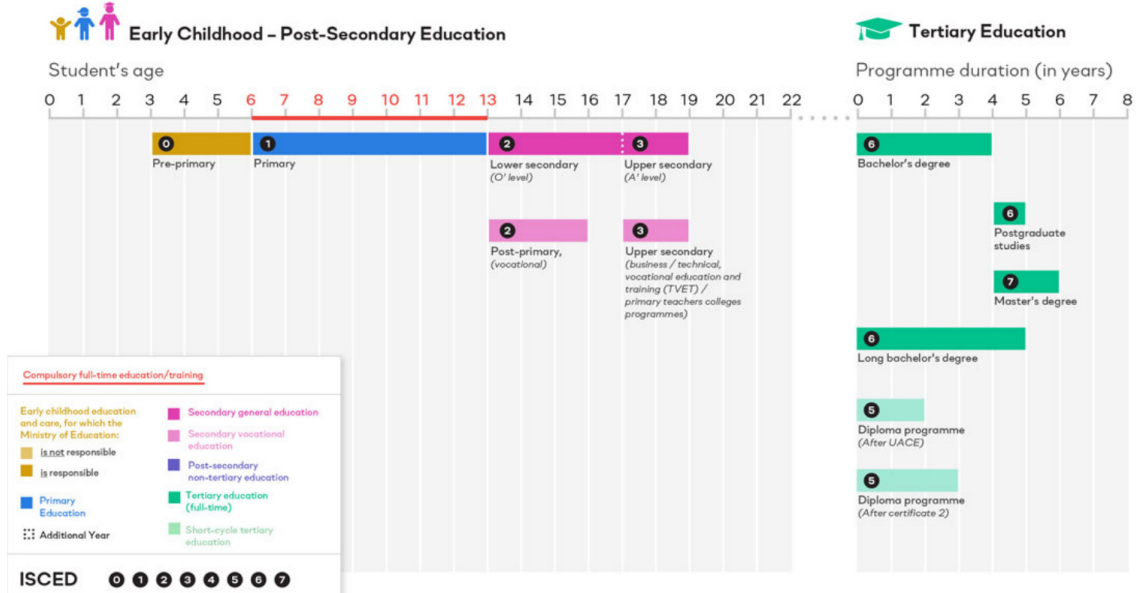
- 케냐의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교사의 역량 개발 현황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ePTS에 정의된 케냐 교사들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 표준에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케냐의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기본 자질과 역량으로 세계시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교육 또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세계시민교육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우간다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 우간다 교육은 7년제 초등교육, 6년제 중등교육(4년제 중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로 구분), 3~5년제 대학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간다 정부는 교육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 초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예산, 교사 교육,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구조, 부적절한 교육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우간다의 교육개발의 진전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문해력이 있는 우간다인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라는 기본적인 교육단계를 거치지만, 대학이나 기타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다.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록률의 격차가 매우 크며, 이는 대부분의 우간다인이 초등교육 수준에서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초등 이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등교육 이후 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 문제는 주로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Memoir Uganda, 2023).
- 우간다 정부는 교육을 사회 변화, 국가 통합, 개발의 촉매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했으며, 근본적으로 교육권은 우간다 헌법(1995)에서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2008)은 국가 교육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 도구가 되며, 정부백서(1992)는 교육 부문의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또한 산업,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법(2008),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법(2001) 및 최근 승인된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정책(2024)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어 있다(UNICEF, 2024). 우간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방향성은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에 잘 나타나 있다. 우간다 비전 2040에 나타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The Government of Uganda, 2013).
 - ① 인적자원개발전략: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경제 내 기술 수요에 맞춰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
 - ② 아시아 호랑이의 경제 기적(Economic Miracles of the East Asian Tigers) 사례 참조: 최신 기술, 교육, 지속적 학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 아시아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 변혁 도모

- ③ 상위중소득국가로의 도약 목표: 창의성, 혁신성, 기술격차 등을 해결하여 2040년까지 상위 중산층 국가로 성장
 - ④ 세계적 수준의 교육체제 구축: 선진국 대학 캠퍼스 유치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학습 기회 확대
 - ⑤ 해외 유학 지원: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주요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⑥ 연구 개발 촉진: 글로벌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센터 설립을 장려하여 연구 개발 기회 제공
 - ⑦ 정책 검토 및 개선: 기술교육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 개발을 위해 법적, 제도적 체계 재검토
 - ⑧ 해외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 최첨단 기술 습득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 ⑨ 스포츠와 창의 예술 개발: 스포츠 시설 건설과 재능 발굴을 통한 스포츠 및 예술 발전
 - ⑩ 노동력 해외 파견 지원: 유휴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더불어, 우간다 정부는 3차 국가개발계획(Third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III)을 통해 아래와 같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NPA, 2020).
 - ① 노동력 중 적정 고용으로 전환하는 비율 34.5%에서 55%로 증가
 - ② 과학 및 기술 졸업생 대 예술 졸업생 비율 2:5에서 3:5로 증가
 - ③ TVET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만족하는 고용주 비율 40%에서 65%로 증가
 - ④ 평균 교육기간 6.1년에서 11년으로 증가
 - ⑤ 학습조정연수(learning adjusted years) 4.5년에서 7년으로 증가
- 우간다는 7-4-2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 형식교육은 7년제 초등교육으로 시작하여 4년제 일반중등교육(Ordinary level, 중학교 수준)과 2년제 상급중등교육(Advanced level,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어지며, 상급중등교육은 3-5년제 대학 교육으로 이어진다. 우간다의 학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2] 우간다의 학제

출처: UNESCO(2023)

- 1997년 우간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아동에게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보편적 초등교육(UPE,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수업료 등이 부족해 중등교육으로 진학하지 못한 학습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보편적 중등교육(USE, Universal Secondary Education)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우간다는 2024년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160만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난민에게 교육과 훈련을 무료로 제공하는 진보적인 정책 제도를 갖추고 있다. 2018년 9월에 시작된 교육대응계획 I(2018-2021)(Education Response Plan I(2018-2021), ERP I)은 난민 수용 지역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년간 교육비용 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차 교육대응계획(ERP II)은 ERP I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3년 5월(2021/22~2024/25)에 출범하기도 하였다(UNICEF, 2024).
- 교육부문은 우간다 비전 2040 및 국가개발계획 III(2020/21~2024/25)(National Development Plan III, NDP III)과 같은 중기개발목표의 핵심 축이며, NDP III에서 국가는 평균교육연수를 11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아프리카 의제 2063,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지역 및 국제개발 프레임워크와 협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

다(UNICEF, 2024).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간다는 교육개발 성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10세 이상의 문해율은 2006년 69%에서 2020년 76.1%로 증가하였고 평균 교육 연수 또한 2000년 3.9년에서 2022년 6.2년으로 59%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더불어 초등학교 전체 등록 학생 수는 1996년 250만 명에서 2019년 1,08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등학교 등록 학생 수는 2006년 814,087명에서 2019년 2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간다의 교육 부문은 여전히 접근성, 형평성, 교육의 질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주로 높은 인구 증가, 높은 빈곤율, 부족한 교육예산 조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UNICEF, 2024).

- 우간다의 초등교육을 살펴보면, 우간다는 7년제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법적 입학 연령은 6세이다. 정부 지원 초등학교는 모든 우간다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보편적 초등교육(UPE)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체제는 무상 교육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커지면서 민주화와 공개 선거의 결과로 1997년부터 도입되었다. 우간다의 중등교육 시스템 구조는 이전 식민지 지배자였던 영국의 교육체제를 따르는데, 일반중등교육(Ordinary level) 수준과 상급중등교육(Advanced level) 수준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소위 중학교의 경우는 Senior 1학년부터 Senior 4학년에 해당하는 4년간의 학교교육으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최소 8개 과목, 최대 10개 과목에서 일반수준(O-level) 시험을 치러야 하고, 상급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소위 고등학교는 Senior 5학년부터 Senior 6학년에 해당하는 2년간의 학교교육으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최소 3개 과목과 추가 보조과목을 듣고 상급수준(A-level) 시험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 3년제 기술학교는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위한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위한 대안적 교육으로 제공되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학교로는 2~3년제 기술학원, 2년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초등사범학교(PTC, Primary Teacher Colleges), 교과사범학교(DTC, Department Training Colleges), 일반 고등학교가 준비되어 있다(Memoir Uganda, 2023).
- 초등학교 등록생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를 말한다. 2017년도 기준 초등학교 등록생수는 8,840,589명으로 2013년 850만 명에서 2017년 약 88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교사수는 2013년 약 185,000명에서 2017년 207,000명으로 수년간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등록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2017년에 등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1학년

- (P.1)에는 약 200만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7학년(P.7)은 약 62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당 학생 비율(PTR)은 2015년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43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수는 20,305개교이고 전체 교실수는 164,833실로 조사되었다(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23).
- 초등학교 졸업 시험(PLE, Primary Leaving Examinations)은 중등학교 1학년(S.1)으로 진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2022년에 PLE에 응시한 학생의 88%(357,799명)가 합격을 하였지만, 약 97,109명의 학생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60%)이 7학년(P.7)을 마쳤지만, 7학년(P.7)을 마친 학생의 61%만이 상급 학교인 중학교(S.1)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진학에서의 성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등교사의 60.5%인 125,441명의 교사가 3급교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5.1%인 31,388명의 교사가 DTE(Diploma in Primary Education) 자격교사이며, 교사자격증을 갖추 교사는 0.4%인 9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23).
 - 중등학교 등록인원은 2016년 약 1,458,000명에서 2017년 1,370,583명으로 6% 감소했고, 교사당 학생 비율(STR, Student Teacher Ratio)은 2016년 22명에서 2017년 21명으로 떨어졌다. 교실당 학생 비율은 2016년 51명에서 49명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학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른 등록률은 2017년에 중등 1학년(Senior One) 학생수 347,529명에서 중등 6학년(Senior Six) 학생수 67,61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패턴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다. 우간다의 총 중등학교의 수는 2,995개교이며, 총 교사수는 64,966명이고, 총 교실수는 27,771실이다. 우간다는 2019년 부터 모든 학교 수준의 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교육학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국가교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등학교 교사의 46%만이 교육학학사 졸업자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의 약 37%가 5급교사였고,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1% 미만이었다(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23).
 - 중등학교에는 두 단계의 국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등학교 교육의 처음 4년(Senior Four)이 끝날 때 치르는 우간다 교육인증(UCE, Uganda Certificate of Education) 시험이고, 두 번째는 중등학교 6년간의 교육(Senior Six)이 끝날 때 치르는 우간다 상급교육인증(UACE, Uganda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 시험이다. 2022년 UCE에 등록

한 349,459명의 지원자 중 345,695명만이 시험에 응시했고, 3,764명의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원자는 2020년 333,396명에서 2022년 349,459명으로 16,063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합격률은 2020년 94%에서 2022년 96%로 증가하였고, 성취율도 2020년 49%에서 2022년 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ACE의 경우는 2020년에는 97,440명의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했으나 2022년에는 96,557명의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해 883명의 응시자가 감소하였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합격률은 2020년과 2022년이 동일하게 99.2%의 합격률을 보였다. 일반중등교육(Ordinary level) 수준의 이수율은 2017년 기준으로 34.8%이며 상급중등교육(Advanced level) 수준으로의 진학률은 2017년 기준으로 24.8%인 것으로 나타나 이수율과 진학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23).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1) 세계시민교육 현황

- 우간다 국가교육과정개발센터(NCDC,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Centre)는 국가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그 단점을 제거하여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육 및 평가를 개선한다(NCDC, 2020). 이에 NCDC(2020)는 기존의 중등교육과정을 점검함으로써 기존 교육과정의 단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 바 있다.
 - ① NRM 선언문(NRM Manifesto 2016-2021)에서는 우간다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평가 및 시험 제도 개선, 자존감과 성실성 그리고 긍정적인 업무 태도를 촉진하는 소프트스킬 강화,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학습 및 컴퓨터활용능력 촉진 등을 강조하지만, 우간다 교육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부족하며, 존재하더라도 낮은 수준을 갖고 있음
 - ② 우간다 교육스포츠부문전략계획(Education and Sports Sector Strategic plan 2017/20) 또한 NRM 선언문과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스포츠부문전략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관련성 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우간다의 중등교육과정은 학문적으로 지향하는 소수 엘리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향후에는 보다 대다수 학습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음

- 우간다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동의한 국가이다. 그러나 디지털로 접근가능한 교육과정 이 부족하여 우간다의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우간다 교육과정의 광범위한 특성화와 세계시민과 관련된 우간다의 위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IBE-UNESCO,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우간다 초등교육과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 인용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국가적 통일과 애국심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친밀한 관계와 유익한 상호의존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가적 통일, 애국심 및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증진하고, 개인에게 도덕적, 윤리적 및 영적 가치를 심어주고 자기 규율, 성실성, 관용 및 인간적 교감을 개발하며, 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그룹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 및 국가 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봉사, 의무 및 리더십 감각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국가적 통합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국가와 이웃 국가(르완다, 남수단, 콩고)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 장기적인 민족적 위기와 전쟁의 사회 정치적 맥락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IBE-UNESCO, 2017).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과정인 4학년 사회연구과정의 학습성과에서는 국가, 지역 또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취수준은 GCED 비전 5(GCED's vision 5)와 비슷하게 '사람과 국가의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에는 이 학습이 글로벌 수준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없기에, 국가적 수준과 관점을 넘어서는 인지·사회·정서적 목표를 지닌 세계시민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우간다의 일상생활과 국가 시민권에 대한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교육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IBE-UNESCO, 2017).
-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간다 교육스포츠부(MoES)는 국가교육과정개발센터(NCDC)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중심을 두고 심화된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환경, 학습기회, 상호작용, 학습과제 및 과제 제시 지침 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중등교육 과정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이에 NCDC(2020)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중등학교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태도'를 증진할 것을 요청하며, 효과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을 통해 졸업생의 실업률을 줄이고, 교실에서 학습해야 하는 과도한 분량의 교과내용 및 교사에 의한 전달식 수업 시간을 줄여 자기주도적 탐구학습과 연구, 프로젝트학습 등의 시간을 늘리고, 모든 과목에 걸쳐 새로운 지식분야의 수용을 허용하고 쓸모없는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재능 및 창의성 개발을 보장하며, 광산 부문, 관광, 서비스분야, 과학 및 기술개발과 같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를 관련 과목에 노출시키는 진

로지도프로그램을 보장함으로써 학습자가 진로탐색과정 중에 정보에 기반한 진로선택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다(NCDC, 2020).

- 이러한 맥락에서 NCDC(2020)는 우간다의 새로운 중등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하는 중요한 학습성과를 ① 자신감 있는 개인, ② 책임감 있고 애국적인 시민, ③ 평생 학습자, ④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으로 제안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우간다 젊은이들이 아래와 같은 자질과 역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우간다 교육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NCDC, 2020).

1. 자신감 있는 개인

- 자기 동기 부여, 자기 관리 및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 자신의 선호도, 강점 및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맞게 행동과 언어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 다양한 성격 유형과 잘 어울립니다.

2. 책임감 있고 애국적인 시민

- 교육과정에서 장려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 토착 문화와 언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중시합니다.
-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해 결정을 내릴 때 환경과 건강에 대해 인식합니다.
- 개인 및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 웰빙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3. 평생 학습자

- 자신의 학습을 계획, 반성 및 주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전문적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4.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

- 일반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 방법을 이해합니다.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프로세스를 설계, 제작 및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 물리적, 생물학적, 기술적 세계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립니다.

- 위와 같이 NCDC(2020)가 제안한 새로운 교육과정 구상을 통해 우간다 정부는 국가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안에서는 인권과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존중과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도 중점을 두어, 기후 변화, 자원고갈 등 글로벌환경문제를 다루고 학생들이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우간다의 역사적 맥락과 연계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립운동과 해방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학습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토론, 프로젝트기반 학습, 현장학습 등의 학습자중심교육방법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교사교육 현황

- 지금까지 우간다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간다의 교사교육 및 현직교사 연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사교육 및 연수에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다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간다에서 교사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는 TIET(The department of Teacher/Instructor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TIET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교육, 중등학교 교사 교육, 훈련교사(Instructor) 및 튜터(Tutor) 교육을 맡고 있다. 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 초등사범학교(PTC, Primary Teachers' Colleges) 및 보건교사양성학교(Health Training Institutions)의 교수요원(Tutor), 기술학교의 훈련교사(Instructor), 국립사범대를 포함한 단과 대학(상대, 공대 등)의 강사(Lecturers) 등으로 나뉘어지며 이러한 교원들의 교육 및 임용, 연수 등을 TIET가 맡고 있다(UNESCO, 2016).
- 우간다에서 초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TEI(Teacher Education Institution)를 졸업하거나 대학(University)을 졸업하여야 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TEI에 제공하는 교사자격과정(Certificate in Education)을 졸업해야 하며, 중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TEI에서 제공하는 교사자격과정(Diploma in Education)을 졸업하여야 한다. 중학교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사학위, 석사학

위, 박사학위 과정을 졸업하여야 한다(UNESCO, 2016). 우간다의 국가역량기준(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자격기준인 Certificate in Education은 레벨 3(고등학교 졸업)로 되어 있으며,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학사학위 전 단계인 레벨 4-5(디플로마 수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학사학위 이상의 레벨 6-7(학사, 석사, 박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교사양성기관으로 National Teachers College at Kyambogo, Uganda Technical College at Kyambogo, Faculty of Education at Makerere University와 몇개의 Teachers Training Colleges가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 10개의 국립사범학교(Government National Teachers' Colleges(NTC))가 설립되고 초등사범학교(PTC)의 경우는 80개 정도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5개의 국립사범학교(NTC)와 3개의 사립사범학교, 48개의 정부 설립 초등사범학교(PTC)와 3개의 사립 초등사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양성자격 인증을 갖춘 약 35개 교사양성기관 및 몇몇의 대학에서 우간다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UNESCO, 2016).

- 우간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우간다 교사교육의 과제로는 다양한 학위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사교육 기관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교육기간, 실습기간(교생실습) 및 교육의 질이 기관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교생실습은 3-8주로 다양했으며 사범교육 교육 모델이 비효율적이며, 교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교직 전문성을 기르고 교수법을 가르치는 훈련 및 멘토링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에서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재교육, 교육평가와 관련된 연수 등을 제공해주는 교사연수(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에 대한 정보와 연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JICA의 '과학 및 수학 교사 직무 내 연수'(SESEMAT)와 같은 개발파트너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이 현직 교사연수를 주도하는 등 정부의 주도로 현직 교사연수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UNESCO, 2016).
- TIET(Teacher Instructo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정한 우간다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아래와 같다(Uganda MoES, 2019).

- ① 학습 활동 준비
- ② 학습 활동 제공

- ③ 학습 평가
 - ④ 커리큘럼 개발 및 검토
 - ⑤ 현장 실습 및 배정 활동 지원
 - ⑥ 공동 교육과정 활동 지원
 - ⑦ 안내, 상담 및 멘토링 수행
 - ⑧ 기록 보관
 - ⑨ 행정 업무 수행
 - ⑩ 산업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활동 수행
 - ⑪ 연구 및 반성적 실천 수행
 - ⑫ 교원연수 참여
 - ⑬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 ⑭ 기업가적 업무 수행
- 우간다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있지만, 위와 같이 TIET에서 정의한 우간다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역량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우간다 교육에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 교육 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간다 교사가 먼저 세계시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교육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우간다 표준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학업성취와 시험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UNATCOM, 2016).
 - 이에 우간다 교사들에 의해서 세계시민교육이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우간다 교육과정에 세계 시민교육의 통합,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임용되는 우간다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준비도 향상, 현직교사 연수가 의무화됨은 물론 필수 연수 과목 중에 세계시민교육 포함,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리더십의 인식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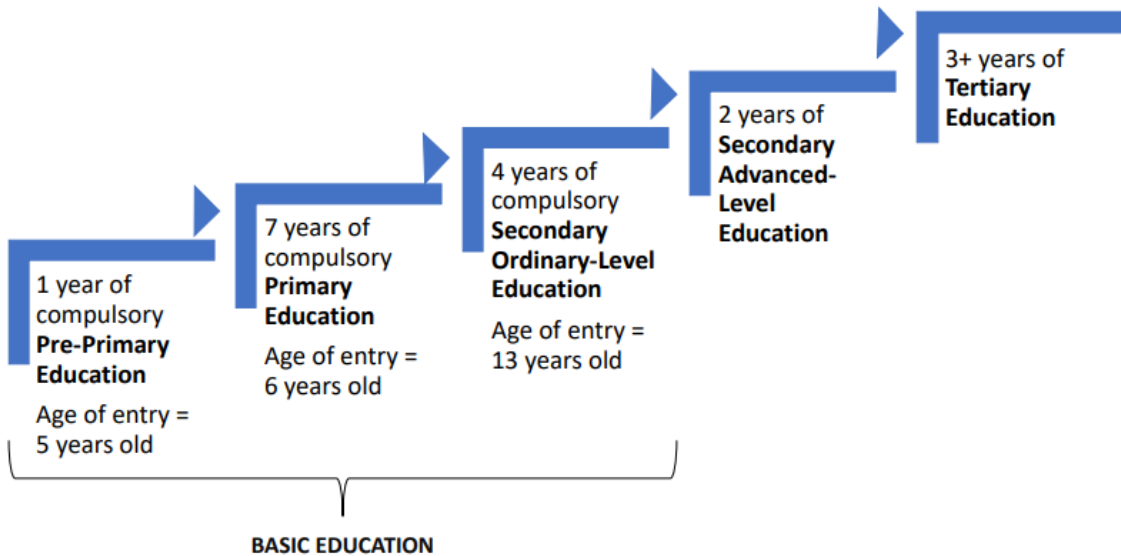
3. 탄자니아

가. 교육제도 및 교육현황

-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기초교육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개혁을 시행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은 학습성과를 개선하고 탄자니아인에게 적합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는 2005년에 학생들의 내용지식습득보다는 역량개발을 강조하는 역량기반교육과정(CBC)을 도입했다. 2014년에 탄자니아 정부는 3R 개혁을 시행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3R)의 기초 학습을 강화했다. 이 개혁을 통해 초등학교 각 학년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지만, 교육과정 개혁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Quality)과 관련성(Relevance)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탄자니아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21세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지 못하기에 학습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외부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못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탄자니아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개인이 학교에서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및 협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 기술, 직업 능력 및 인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Komba, A., Shukia, R., 2023).
-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문제는 과거에도 지적되었는데, 1982년에 대통령교육위원회보고서에 “탄자니아와 세계경제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은 시민들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대통령교육위원회 1982).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각성은 2019년에 열린 연례 합동교육부 문검토의 주제인 “산업화 경제를 위한 기술 개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 부문에서 생활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사회정서적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갖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Komba, A., Shukia, R., 2023). 이러한 문제의식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에 열린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의회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에 의해서 연설되어졌다. 대통령이 밝힌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2014년에 수립된 교육 및 훈련 정책과 교육과정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책과 교육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탄자니아 정부가 ‘21세기 기술’을 가르치고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대중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을 개정할 계획임을 2021년 5월 5일 의회에서 진행된 교육예산관련 연설에서 천명한 바 있다(Komba, A., Shukia, R., 2023).

- 탄자니아의 공식 학제 구조는 유아교육, 초등교육(1~7학년), 중등일반교육, 중등상급교육, 3년 이상의 고등교육(1~7~4~2~3+)으로 구성된다. 탄자니아 학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3] 탄자니아의 학제

출처: Komba, A., Shukia, R., (2023)

- 탄자니아의 학제는 유아교육 1년, 초등교육 7년, 중등일반교육 4년, 중등상급교육 2년, 대학교육 3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기초교육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일반교육을 지칭하며 총 12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초교육은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제공된다.
- 탄자니아는 2014년에 만들어진 ‘교육 및 훈련 정책(Education and Training Policy)’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 정책 개발은 1961년 독립 이후의 초기 교육 개혁에서 시작하여 1967년 자립 교육 정책과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후속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이에 2014년 정책을 개선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국제적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판 교육 및 훈련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에 2023년판 교육 및

훈련 정책(2023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은 기존의 교육 과제를 극복하고, 질을 향상시키고,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시스템의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탄자니아 국민을 잘 교육받고 숙련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MOJA, 2024).

- 개정된 ‘2023 교육 및 훈련 정책’은 2014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 소통’,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Policy Forum, 2024). 더불어 새로운 교육 정책에서 개정된 영역에는 교사교육, 고등교육, 기술기반교육과정, 연구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과정 설계, 평가 방법 및 교사 전문성 개발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여 개인의 배경이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인 격차를 완화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교육 방법을 옹호하는 조치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Policy Forum, 2024). 이러한 새롭게 구상된 교육 및 훈련 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숙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탄자니아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강화, ②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③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국가, 지역 및 국제 표준에 맞추며, 2023년판의 주요 분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MOJA, 2024).

① 시스템 효율성 및 효과성:

-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강화
- 다양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확대

② 커리큘럼 개선:

- 국가 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글로벌 노동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③ 포용적 교육:

- 스와힐리어, 영어, 탄자니아 수화 및 기타 외국어 사용 장려
-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교육 강화

④ 평가 및 인증:

- 시험, 평가 및 인증 프로세스 개선
- 모든 교육 수준에서 기술 인증 도입

⑤ 리더십 및 거버넌스:

- 교육 리더십 및 관리 강화
- 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재정 관리 확대

- 2021년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탄자니아 초등학교수는 총 16,393개교이다. 탄자니아 초등학교 등록학생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총 11,196,788명이며, 이 중에서 공립학교 재학생수는 10,687,593명이고 나머지는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공립초등학교의 전체 교사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71,993명이고 이 중에서 자격교사는 170,708명이다. 반면 사립학교의 전체 교사수는 25,926명이고 이 중에서 자격교사는 24,204명이다. 초등학교의 교사당 학생 비율은 1:57명이고 자격교사당 학생 비율 역시 1:57명이다.
- 2021년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탄자니아 중등학교수는 총 3,873개교이다. 탄자니아 중등학교 등록학생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총 2,671,927명이며, 이 중에서 공립중등학교 재학생수는 2,379,945명이고 나머지는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공립중등학교의 전체 교사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87,996명이고 이 중에서 자격교사는 87,621명이다. 반면 사립중등학교의 전체 교사수는 21,344명이고 이 중에서 자격교사는 20,808명이다. 중등학교의 교사당 학생 비율은 1:24명이고 자격교사당 학생 비율은 1:25명이다 (Tamisemi, 2024).
- UNICEF(2024)는 탄자니아 교육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교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②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 특히 비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낮고 PSLE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③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는 것은 PSLE에서 학생 성취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됨
 - ④ 정규직 교사는 시간제 교사에 비해 학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특히 도시 학교에서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짐
 - ⑤ 높은 학생-교사 비율은 진급률과 PSLE 성취도 모두에 강한 부정적 연관성을 보임

- ⑥ 영어, 수학, 스와힐리어의 세 가지 핵심 과목에 대한 학생당 교과서 수를 늘리면 학년 진급과 PSLE 점수가 향상됨
 - ⑦ 충분한 학생 좌석, 위생 시설 이용, 교실 사용성 증가와 같은 물리적 학교인프라는 모두 학생을 학교에 유지하고 PSLE 성취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연관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ICEF(2024)는 교과서의 가용성을 높이고 교과서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고 교사가 부족한 지역 및 학업 성취가 낮은 학교에 적절한 교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탄자니아 교육스포츠과학부(MoEST)가 성별 규범과 기대가 교실에서의 교육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사에게 성인지교육을 제공하고 교수-학습자료를 포함한 기존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젠더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Policy Forum (2024)은 탄자니아 정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학교에서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이 교육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술(Technology)을 교수-학습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디지털 자료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교사를 위해 교육에서 기술(Technology)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기술(Technology)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Policy Forum, 2024).

나.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현황

1) 세계시민교육 현황

-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탄자니아인이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또는 소득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 및 훈련 기회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학생이 관련 수준의 교육 주기를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정책(Education and Training Policy(2014))’을 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 정책에는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개방형 및 원격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재능, 소질 및 학습 속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 외부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및 기술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Tanzania MoEST, 2023a).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교육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교육개발 및 훈련에 있어 지역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국제적인 협력은 Commonwealth of Learning(COL), SDG's, Agenda 2063 - Africa We Want, Unesco-Perth Declaration(2007), SADC 및 EAC와 같은 다양한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고, '아프리카교육 규정 권익위 포럼(Africa Forum of Teaching Regulatory Authority, AFTRA)'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국가 간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적, 국제적 관계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조화를 위한 공동 협약, 교육 및 자격 공동 인정과 같은 일부 협정을 이행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Tanzania MoEST, 2023a).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세계시민교육(GCED)의 가치를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남아프리카해방역사(SALH, Southern Africa Liberation History)' 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여 교육과정 내에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세계시민교육과 남아프리카해방역사의 교육과정 통합은 역사, 시민교육, 지리, 사회 과목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시도는 교육과정 개발자, 교육자 및 관련 교육부가 세계시민교육과 남아프리카해방역사를 통합하는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자니아는 세계시민교육과 남아프리카해방역사 교육을 모두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국가의 좋은 사례이며, 이 접근 방식은 아마도 모범 사례로 채택될 수 있다(Tapiwa, V. et al, 2023).
- 탄자니아 교육과정 중에 남아프리카해방역사 교육은 4학년(연령대 14~15세) 역사 교과과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다른 남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연합(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에 소속된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일부 활동으로는 해방투사들의 활동을 지원했던 모로고로 마짐부 지역으로 견학을 가는 것을 포함하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 견학은 솔로몬마흘란구자유대학이 있는 곳에서 주로 수행되는데, 이 대학은 이와 같은 견학 프로그램을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학습자들은 탄자니아가 해방하도록 도운 국가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며, 학습자들은 SADC 국가의 국가와 국기를 논의하고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학습자는 탄자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

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1900년대 초 나미비아에서 일어난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과 같은 세계시민성과 남아프리카해방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산문을 작성하는 등의 학습활동을 하기도 한다(Tanzania MoEST, 2023a).

- 이와 관련하여 탄자니아 초등학교 1~6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자니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여지는 세계시민관련 내용들은 사회적 책임과 포용성, 환경 인식과 지속가능성, 평화와 협력 증진 등이 있었다. 또한 인권, 존엄성, 포용적 행동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며, 불평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 시키는 한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키우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더불어 환경, 평화와 협력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어, 환경보호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자를 양성하려는 세계시민교육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nzania MoEST, 2023b).

2) 교사교육 현황

- 탄자니아의 교사교육은 현재 중등상급교육(grade A, 고등학교 수준), 디플로마(diploma, 초급대학 수준), 학위(degree) 수준의 3단계로 제공된다. 고등학교 수준인 TTC(Teacher Training College)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및 교육방법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며 전체 교육은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2년간 진행된다. TTC의 예비교사가 교사양성교육을 무사히 마치면 전문교사(Professional Teacher)로 졸업하고 정부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된다. 이렇게 임용된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지만 때로는 과학 교사가 특히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자격이 있는 교사가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디플로마에 등록한 예비교사는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교사양성교육은 2년간 진행된다.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예비교사는 중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더불어 고등학교 수준의 TTC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된다. 이러한 교사자격이 주어지는 학위는 3년간 대학에서 진행된다(Mosha, M. A., 2017).

- 탄자니아 정부는 예비교사들의 교사양성훈련과정을 통해 의사소통기술과 교수학습과정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글로벌사회, 정치적문제, 과학기술의 진보, 한국가의 교육에서의 교사들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식을 키우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Tanzania MoEST, 2019). 이러한 교육내용은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세계시민성을 가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내용이 예비교사교육에서 실제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는 없다. 다만, 국가의 교사교육체계에 글로벌한 표준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교사교육에서 세계시민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탄자니아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현직교사들의 교사연수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 다만, Mrutu와 그의 동료들(Mrutu, N., Nkota, H., Kova, J., Kibga, E., Kajoro, P., Hoka, A., & Mtenzi, F., 2023)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 탄자니아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 역량기반교육과정(CBC)에 교사연수 조차도 길어야 3일 정도 연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교사연수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교사연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Mrutu와 그의 동료들(Mrutu, N., Nkota, H., Kova, J., Kibga, E., Kajoro, P., Hoka, A., & Mtenzi, F., 2023)은 탄자니아 정부의 교사연수 등에 대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교육예산 등의 자원투입의 부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하며 교사연수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탄자니아 교육과정에 녹여져 있는 세계시민성 개발에 대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교육에서 미래의 교사를 위한 양질의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직 교사연수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3장

협력 후보국의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제3장 협력 후보국의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1. 분석 개요

- 타당성 분석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오명석 외, 2021; 유성상 외, 2021; 유성상 외, 2022)에서 제안한 타당성 조사 항목을 근거로 하였다. 오명석 외(2021)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 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준거로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 협력의 두 가지 층위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후의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 이러한 타당성 분석의 틀은 협력 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기관 수준에서도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틀을 수정·보완해서 타당성 분석틀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 국가 수준의 타당성은 국제적으로 정책 및 사업 평가의 준거로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OECD의 적절성 및 일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수준에서는 적절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며, 적절성은 협력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나 교육정책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정책 부합성), 그리고 본 사업이 수혜자의 수요(개발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관성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기관 수준에서는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영향력, 효율성, 지속가능성, 범분야 이슈의 6개 항목을 검토하였다. 기관 수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략 및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전략과 협력센터 구축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일관성, 협력기관의 관련 사업 경험 및 제도적인 변화 차원의 효과성, 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 가능성, 해당 기관이 아태교육원 및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략적, 현실적 의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취약계층의 참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III-1〉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

수준	항목	세부항목	세부질문
국가 수준	적절성	정책 부합성	• 협력국의 주관 부처(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혹은 전략이 있는가?
		개발수요	• 본 사업은 협력국의 관련 정책 혹은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가?
	일관성	협력 경험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기관 수준	적절성	기관수준 전략	• 협력기관의 비전, 가치, 목표에 세계시민교육 및 관련 개념이 언급되어 있는가?
		기관수준 우선순위	• 협력기관의 국제 활동 중 세계시민교육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계획/수행되고 있는가?
	일관성	주체별 활동의 일관성	• 협력국 내 다양한 주체별 활동(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정부, 시민사회 등)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사업 내용의 일관성	• 협력기관이 진행한 기존의 활동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가?
	효과성 영향력	사업성과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및 정책 이행 경험이 있는가?
		사업성과 (교사연수)	• 교사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가?
		사업성과 (제도개선)	• GCED 관련 사업 발굴과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 단계에 걸쳐 제도변화 (법, 정책, 교육과정 개선 등)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사업성과 (역량개발)	• 협력사업 발굴과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참여자의 인적 역량강화 및 인식 변화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효율성	물적자원	•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인적자원	• 협력사업의 의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련 경력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 협력사업의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체제	• 협력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수준	항목	세부항목	세부질문
	지속 가능성	재정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	• 협력기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협력 체계	• 협력 기관이 유네스코 및 아태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략적, 현실적 의지가 있는가?
		센터/책임자의 후속 활동 의지	•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범분야 이슈	취약계층 고려 (젠더, 인권, 등)	• 협력 기관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가?

2. 국가 수준 타당성 분석 결과

- 국가 수준의 타당성은 적절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앞에서 분석한 교육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 3개국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 검토 결과,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3개국은 공통적으로 SDGs 관련 내용을 국가발전전략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도 SDGs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국가에서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교육과정 내에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요소를 범분야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케냐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기술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 이 중에서 케냐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케냐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용 매뉴얼을 함께 개발하고, 실제 중등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우간다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태교육원 및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과 협력해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우간다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를

도출하고 우간다 교육부 및 우간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주도로 우간다 맥락에 맞는 학생용 세계시민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해당 요소를 반영한 학생용 학습자료의 개발이 국가교육과정 자체의 개선이나 교육과정 실행의 우선적 주체인 교사들의 실천력 향상을 지원하는 체계구축과 병행되지는 않아, 세계시민교육의 정착과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아태교육원과 직접적인 협력 사업을 수행한 경험은 없지만, 아태교육원이 주관한 ‘아프리카 아태지역 교원 역량강화연수’ 사업에 탄자니아 교원이 참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사 개인 차원의 협력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경험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케냐의 경우에는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ADEA) 내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한다. ADEA는 아프리카연합(AU)에 소속된 54개국의 교육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아프리카의 교육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운영을 통해서 회원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박환보·이유리, 2019).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선진공여기관들이 외부 협력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교육개발을 위한 고유한 정책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부는 2012년 ADEA 운영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한-아프리카의 날을 2회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ADEA의 평화교육 ICQN(부록 참조)은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 주로 재정지원 유형으로 협력하여 평화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UNESCO, UNICEF, 독일협력개발청(GIZ)의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평화교육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네트워크는 향후 협력센터의 성과를 케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공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케냐는 세계시민교육 추진에 대한 의지,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연구 경험,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가능성, 한국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의 관련 사업 경험, 등의 측면에서 다른 2개 국가에 비해서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케냐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III-10〉 국가별 적절성 및 일관성 비교분석 결과 (1-5점 척도)

평가항목	세부질문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적절성	• 협력국의 주관 부처(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혹은 전략이 있는가?	5	4	4
	• 본 사업은 협력국의 관련 정책 혹은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가?	4	3	3
일관성	• 협력국은 한국 정부의 ODA 정책 및 협력 전략에 부합하는가?	3	5	5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5	4	2
합계		17	16	14

-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적절성 1. 협력국의 주관 부처(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혹은 전략이 있는가?

- ①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및 전략 없음
- ②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및 전략이 없지만 현재 논의 중임
- ③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나, 최신 교육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④ 최신 국가발전 전략 또는 교육정책에 세계시민교육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⑤ 최신 국가발전 전략 또는 교육정책에 세계시민교육이 직접 명시되어 있음

적절성 2. 본 사업은 협력국의 관련 정책 혹은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가?

- ①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및 전략 없음
- ② 수요조사를 포함해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바 없음
- ③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④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⑤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한 바 있음

일관성 1. 협력국은 한국 정부의 ODA 정책 및 협력 전략에 부합하는가?

- 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
- ② 한국의 ODA 협력국가는 아니지만 공공외교정책에 부합함
- ③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가는 아니지만 전략 지역 내의 협력 국가임
- ④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가이지만 교육분야가 중점협력 분야는 아님
- ⑤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가이며 교육분야가 중점협력 분야임

일관성 2.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 ① 참여 경험이 전혀 없음
- ② 국가 또는 기관 차원에서 협력 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으나 개인 차원의 참여 사례는 있음
- ③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없으나 아태교육원과 협력한 경험은 있음(세미나, 워크숍, 학술행사, 등)
- ④ 세계시민교육 관련 협력 사업에 일부 참여한 경험이 있음
- ⑤ 세계시민교육 관련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가. 적절성

- 적절성은 케냐의 국가발전 전략이나 교육정책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본 사업이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교육, 훈련, 연구 및 혁신체제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교육, 훈련 및 연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을 국가 생산 시스템에 통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케냐 교육부는 국가교육전략인 'NATIONAL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2023-2027'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교육전략에서도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기술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nya MoE, 2024b). 국가교육전략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의 포용성, 형평성, 21세기역량 육성이라는 상위의 목표 아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전략 전반에 범분야 이슈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Kenya MoE, 2024b).
- 또한 케냐는 2017년 8-4-4 학제(초등교육 8년, 중등교육 4년, 고등교육 4년)에서 2-6-6-3 학제(유아교육 2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3년 이상)로 전환하면서 역량기반교육과정(CBC)을 채택하였다. 기초교육은 연령 및 학교 단계에 따르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구성된다(Kenya MoE, 2024a). 이를 통해 유치원 2년을 포함해서 초등교육 6년과 전기 중등교육 3년의 기초교육을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케냐 교육부는 역량기반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내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의 전반에 걸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② 학습영역과 교육과정 설계를 지역, 지역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⑦ CBC 구현에 있어 학교의 총체적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종교 및 도덕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⑭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환경 및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구현한다.’, 등과 같이 세계시민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정책도 존재한다.
- 특히 케냐의 역량중심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시민권과 같은 기술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원칙에 맞춰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에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사고, 상상력, 창의성, 시민성, 학습방법 습득, 자기효능감 및 디지털문해가 포함되며(Kenya MoE, 2024b), 내용적으로는 SDG4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환경의식,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다.
- 또한 역량중심교육과정은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교과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갖는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도 학습자와 교사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 인류에게 필요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아가는 협동적 학습을 구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케냐의 역량중심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이나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은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시민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정책부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케냐 정부의 국가교육발전전략 및 역량중심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제도의 운용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도 존재하며, 급속한 도입과 학부모 참여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역량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Muchira et., al., 2023).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량중심교육과정은 기존의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요구하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케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네스코 및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교

사양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편뿐 아니라, 현직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핸드북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주유네스코 케냐대표부 대사 인터뷰).

-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케냐 교육부 산하의 Keny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KICD)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중등학교에 도입했으나, 이를 확대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처럼 역량중심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행을 위한 교사연수 등의 전문성 개발 수요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협력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수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일관성

- 일관성은 한국의 ODA 사업 참여를 포함해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케냐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동아프리카의 전략 국가로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DR 콩고, 탄자니아, 등과 함께 전세계의 ODA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국가로, 우리 정부의 ODA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2023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에서는 인적역량 및 소프트파워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케냐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케냐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 반영 양상을 분석하고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Baringo County의 중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연수에서부터 수업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KICD, 2021).
-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교실현장에서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세계시민교육 협력 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관 수준 타당성 분석 결과

- 기관 수준의 타당성은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영향력, 효율성, 지속가능성, 범분야 이슈의 6개 항목을 검토하였다.

가. 적절성

- 기관 수준에서 적절성은 협력기관의 비전, 가치, 목표 등에 세계시민교육 및 관련 개념이 언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활동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우선순위로 포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케냐의 세계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교사 연수에 관여하는 기관은 크게 정부기관과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교육부의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그리고 교사연수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부기관은 교육과정 개발과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내용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존재한다. 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과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대학과 교원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대학이 존재한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기관별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1) Keny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KICD)¹⁾

- KICD는 1968년 설립된 KIE (Kenya Institute of Education)을 전신으로 하며, 교육부의 산하 기관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실행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KICD는 연구와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모든 학습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기관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KICD, 2023).
- 또한 KICD는 세계시민 관련 요소를 국가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ICD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협력해서 시민 교육,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 간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KICD는 또한 세계시민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교사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교육과정에 GCED 개념을 통합하여 교사가 이러한 주제를 교과 교육에 통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https://kicd.ac.ke/>

2) Kenya Education Management Institute (KEMI)²⁾

- KEMI는 케냐의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교사와 교육행정가 대상의 직무연수와 전문성 개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리더십, 윤리적 의사결정 및 커뮤니티 참여에 초점을 맞춘 모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GCED의 원칙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3) Kenya Teachers Service Commission (TSC)³⁾

- TSC는 케냐의 교사 고용, 배치, 승진 및 전근, 전문성 개발, 등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TSC에서도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Keny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ATCOM)⁴⁾

- 유네스코 케냐 국가위원회는 케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케냐에서 GCED 관련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는 GCED 주제를 통합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사 교육에 세계시민성 관련 내용을 통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5) 대학

- University of Nairobi나 Kenyatta University와 같은 케냐의 우수한 교사교육 기관에서도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며, 지속 가능발전, 인권, 국제 관계, 윤리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학부로 유명한 Kenyatta University은 시민교육, 인권, 평화 교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과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케냐의 대표적인 대학

2) <https://www.kemi.ac.ke/>

3) <https://www.tsc.go.ke/index.php/3ztion@oyozkjan>

4) <https://unesco.go.ke/>

인 University of Nairobi의 경우에도 교육 리더십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윤리, 다문화 교육, 지역 사회 참여와 같은 과목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있다.

6) 교육대학

- 케냐는 각 지역별로 교사 양성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교사 양성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케냐 과학 교사 대학(Kenya Science Teachers College, KSTC)은 과학 및 수학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과학적 윤리와 환경적 책임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론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 대학(Primary Teacher Training Colleges, PTTCs)의 경우에도 시민교육,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화와 사회적 책임의 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이상의 유관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경험을 갖춘 기관은 KICD로 판단된다. KICD는 케냐에 새롭게 도입된 역량중심교육과정의 실행을 담당하며, 관련 교사연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케냐 교육과정에 SDGs를 반영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관 발전전략에도 반영하고 있다(KICD, 2023).
- 케냐의 역량중심교육과정은 SDGs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SDGs 실현과 관련해서 21세기 역량 개발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량은 케냐의 국가발전전략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시민권, 자기효능감, 의사 소통 및 협업, 등의 역량을 포함한다(KICD, 2023). KICD는 발전전략(2023-2027)을 마련하는데 있어, SDGs, Africa Agenda 2063,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비전 2050, 등 글로벌,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개발 의제를 반영했으며, 케냐의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일관성

- 일관성은 협력기관이 케냐 내에서 다른 주체들과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전략 및 사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다른 주체별 활동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케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정부 기관 외에도 유네스코 동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케냐 인권위원회, 개발NGO 등에서 수행 중에 있다.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위치한 유네스코 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케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들은 케냐 정부, 교육 기관 및 시민 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교육정책 개발과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케냐 인권위원회(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KNHRC)는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훈련, 워크숍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케냐에서는 Amnesty International Kenya, Global Peace Foundation, and Plan International Kenya, 등과 같은 여러 국제NGO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도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인권, 성평등, 사회 정의, 평화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 KICD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의 핵심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및 아태교육원을 비롯해서 유니세프, 케냐인권위원회,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 매뉴얼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량중심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관성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효과성/영향력

- 기관 수준에서 효과성과 영향력은 협력기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경험, 교사연수 경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기여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고려, 등을 검토하였다.

- KICD는 케냐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케냐에 새롭게 도입된 역량중심교육과정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Baringo County의 중등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KICD, 2021). 이러한 경험은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KICD는 교육부의 산하 기관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실행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KICD는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교사교육, 성인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고등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 교육프로그램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향후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 사업의 성과를 초중등교육의 전 분야로 확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ICD가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로 지정될 경우, 이는 기관 본연의 업무 중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주요 업무인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도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교육정책이나 국가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시키는 제도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ICD의 구성원 중에서도 협력센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과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효율성

- 효율성은 협력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물적·인적 자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다만,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는 협력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을 포함해서 적절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협력센터 성과 분석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안된 내용이다. 협력센터는 주로 교육과정 개발, 교사연수, 교재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하지만, 센터를 완전히 새롭게 신설하든 기존에 있는 기관 내의 조직으로 설치하든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과 인력 등이 요

구된다. 이를 얼마나 이른 시간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KICD는 오랫동안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교사연수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같이 사업 기획에 필요한 협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KICD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 분야에서 유네스코, 유니세프, 독일, 일본, 월드비전, 등, 여러 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경험은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성과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관이 아태교육원 및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략적·현실적 의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KICD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센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연의 기능으로서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정부에게 있어 역량중심교육과정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역량중심교육과정에는 이미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KICD가 수행하는 교육과정 이행 지원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 이는 KICD가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로 지정될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량중심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또한 KICD는 이미 3년 동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국제 세미나 등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 범분야 이슈

- 범분야 이슈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취약계층의 참여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케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여건 개선뿐 아니라 교육내용에도 해당된다. 또한 최근 역량기반교육과정 이행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각 지역별 교육자원 차이에 따른 격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 이행에 있어 도시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정의, 사회통합, 시민적 참여 등을 강조한다. 이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를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4장 결론 및 제언

1. 타당성 검토 의견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GCED Cooperation Centres, GCCs) 구축 사업은 협력국 내에 센터 설립을 통해 협력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국의 맥락과 수요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이행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1) GCC 설립, (2) GCED 교원연수 프로그램 제공, (3) GCED 관련 지식 축적 및 공유, (4) 지역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본 연구에서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동아프리카 3개국의 교육현황과 세계시민교육 현황, 등 협력 사업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3개국은 공통적으로 국가발전전략과 교육분야 발전 전략 내에 SDGs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 내에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3개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및 교육분야 발전 전략에 부합하며, 세계시민교육 확산과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여부와 이행 현황, 아태교육원과의 협력 사업 추진 경험, 등 적절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3개국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은 케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케냐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과 기관 수준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으며, 전체 100만점에서 85점으로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표 IV-1〉 케냐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표

수준	항목	세부질문	배점
국가 수준	적절성	• 협력국의 주관 부처(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혹은 전략이 있는가?	5
		• 본 사업은 협력국의 관련 정책 혹은 수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가?	4
	일관성	• 협력국은 한국 정부의 ODA 정책 및 협력 전략에 부합하는가?	3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5
기관 수준	적절성	• 협력기관의 비전, 가치, 목표에 세계시민교육 및 관련 개념이 언급되어 있는가?	5
		• 협력기관의 국제 활동 중 세계시민교육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계획/수행되고 있는가?	3
	일관성	• 협력국 내 다양한 주체별 활동(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정부, 시민사회 등)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4
		• 협력기관이 진행한 기존의 활동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가?	5
	효과성 영향력	•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및 정책 이행 경험이 있는가?	5
		• 교사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가?	5
		• GCED 관련 사업 발굴과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 단계에 걸쳐 제도변화(법, 정책, 교육과정 개선 등)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4
		• 협력사업 발굴과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참여자의 인적 역량강화 및 인식 변화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4
	효율성	•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가?	3
		• 협력사업의 의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련 경력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4
		• 협력사업의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4
		• 협력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4
	지속 가능성	• 협력기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3
		• 협력 기관이 유네스코 및 아태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략적, 현실적 의지가 있는가?	5
		•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사업 완료 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범분야 이슈	• 협력 기관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가?	4
종합 점수			83

가. 적절성

- 케냐의 국가발전전략 및 교육정책에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도입된 역량기반교육과정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교사연수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협력 후보기관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며, 기관의 주요한 미션과 기능에 SDGs 이행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SDGs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이 기관 차원의 최우선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성 측면에서 케냐의 KICD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기관의 우선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전담 센터 설치와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나. 일관성

- 케냐는 한국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가는 아니지만, 동아프리카의 거점국가로서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에서도 중요한 협력국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케냐는 아태교육원과 협력해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후보기관인 KICD가 주관 기관으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협력센터 설치 후보 기관인 KICD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의 핵심 기관으로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역량중심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관성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효과성/영향력

- KICD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케냐에 새롭게 도입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KICD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한 경험도 있다.

- 또한 KICD는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교사교육, 성인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 고등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 교육프로그램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인력의 역량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과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효율성

- KICD는 오랫동안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교사연수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도 갖고 있다. 또한 KICD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연수 분야에서 유네스코, 유니세프, 독일, 일본, 월드비전, 등, 여러 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지속가능성

- KICD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센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연의 기능으로서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량중심교육과정에는 이미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KICD가 수행하는 교육과정 이행 지원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 또한 KICD는 이미 3년 동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국제 세미나 등에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KICD가 본 사업의 후보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협력 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케냐의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역량중심교육과정 실행 지원과의 효과적인 연계

- 역량중심교육과정과 같은 국가 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케냐는 최근 학제 개편 및 역량중심교육과정의 도입과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교사용 지침서 개발, 교사연수, 교육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역량중심교육과정이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국가별 교육정책과 연계해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이를 위한 교사양성에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주류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케냐에서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센터의 활동과 국가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명확한 사업 수행 거버넌스 구축과 위상 확보

- 명확한 사업 수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조직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시행 후보기관인 KICD는 케냐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지원을 담당하며, 이와 관련해서 교사연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가 구축될 경우, 교육과정개발, 교사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역사를 두고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사명에 따라 조직된 기관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의 위치가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 부서(Basics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Directorate)에 설치

될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발 지원이라는 업무의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센터장의 위상이 낮고 세계시민교육이 하나의 교과목처럼 축소되어 다루어질 수도 있다.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사업의 목적이 협력국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정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위상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수행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캄보디아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의 경우에도, 케냐의 KICD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NIE에 설치되어 있지만, 원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기획부서장이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기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기획부서에서 센터 운영을 총괄할 경우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에서 조직의 모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향후 센터 구축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보다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계시민교육 및 교사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ICD에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가 설치될 경우, 이미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자료 개발보다는 개발한 자료를 활용한 교사연수와 시범사업 운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연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특히 케냐도 지역적으로 언어나 문화 차이가 존재하고, 지리적 접근성과 같은 교통 여건도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각 지역별 거점 교사교육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가 중요한 과제이다.
- 또한 케냐에 협력센터를 설치할 경우, 케냐에서 협력센터의 운영 성과는 케냐 국내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대상국가로 다루었던 탄자니아나 우간다와 같은 인접 국가로 확산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 사회의 교육열(사교육 포함)이 대륙 내에서 가장 높고 교육제도 관련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양국 간의 초기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뿐만 아니라,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 해결의 문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중요한 교육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기관들에서도 중요한 협력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GENE)은 주로 유럽 국가 내 글로벌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케냐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국제 교육활동도 진행 중이다. GENE은 아프리카에서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시민성, 평화,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동료 학습,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향후 협력센터는 갈등해소의 관점에서 국제기구 및 선진국 기관들의 시존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라. 취약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 취약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케냐는 빈곤과 부족간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고, 도시 빈민과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 이러한 갈등 요소들 때문에, 케냐 교육에서도 평화나 갈등 해소 등을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케냐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마련

-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는 세계시민교육을 직접 추진하는 일뿐만 아니라, 협력국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추진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의 설치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는 단순히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확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협력국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주류화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협력센터의 일차적인 역할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교보재 개발을 포함한 지식 축적과 보급에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시민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러나 졸업시험과 같은 학력 평가 및 진급 시스템이 공고한 사회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무관한 교과목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케냐에서 세계시민교육협력센터 사업은 교사연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중등졸업시험, 대학입학시험, 대학교육과정, 등 중등과 고등교육의 접속과 그 이후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관계부처 합동(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교육부(2024).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박환보, 조대훈, 박경희, 엄정민, 기한솔, 김재은, 김주희(2020).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명석, 한건수, 박환보, 홍문숙, 박민정, 김가형(2021).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동남아를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성상, 방용환, 박경희, 김지인, 김가영, 허나겸(2021).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후보기관 적합성 연구: 캄보디아·필리핀.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성상, 방용환, 이지향, 문이슬(2022).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서남아를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Amutabi, M. N. (2019). Competency-Based Curriculum (CBC) and the end of an Era in Kenya's Education Sector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Some Empirical Reflections. *Journal of Popular Education in Africa*, 3(10), 45-66.
- Dingili, R., & Yungungu, A. M. (2023).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he paradox of the new competency based curriculum in Kenya. *Americ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8(2), 199-212.
- Education in Kenya. WENR. 2015/06/02. Retrieved 2021/4/8.
- Education Sector Policy on Peace Education, (2014).
- Gachathi (1976). Report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educational objectives. Republic of Kenya Nairobi: Government Printer.
- Gichera, J. (2024, May 9). Kenya's New Education Curriculum. <https://kenyachildrentcentres.com/2024/05/09/kenyas-new-education-curriculum/>
-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2015). The Peace Education Program in Kenya. Retrieved from <https://www.peace-edcampaign.org> on 27th April 2019
- <https://kicd.ac.ke/curriculum-reform/basic-education-curriculum-framework/>
- <https://www.tuko.co.ke/271838-courses-offered-kenyatta-university-cluster-points.html>
- IBE-UNESCO (2017). Global Citizenship Concepts in Curriculum Guidelines of 10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IBE-UNESCO.

- IBE-UNESCO. (2017b). The why, what and how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forms: The Kenya experience. *Journal on Current and Critical Issues in Curriculum, Learning and Assessment*, 11(1), 1-24.
- Isaac Ongong'a Ayuyo. 2016.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tudies* (ISSN 2321 - 9203) - Citizenship Education in Kenya: Revisiting Westheimer and Kahne's, the 'Good Citizen'.
- Keny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2017). Basic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BECF).
- Kenya MoE (2018). National Curriculum Policy. MoE.
- Kenya MoE (2020). Basic Education Statistical Booklet 2020. MoE.
- Kenya MoE (2022). GUIDELINES ON CITIZENSHIP EDUCATION IN KENYA. MoE.
- Kenya MoE(2024a). NATIONAL EDUCATION POLICY: Transforming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enya. MoE.
- Kenya MoE (2024b). NATIONAL EDUCATION STRATEGIC PLAN 2023-2027. MoE.
- Kenya National Examination Council. (2021). Competency based assessment framework: For early years education (E.Y.E) in Kenya. KNEC.
- Komba, A., Shukia, R. (2023) An Analysis of the Basic Education Curriculum in Tanzania. RISE Working Paper 23/129 February 2023.
- Memoir Uganda (2023). A look at Uganda's Education System. <https://memoiruganda.com/a-guide-into-ugandas-education-system>
- MOJA (2024). Tanzania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2014 (2023 Edition). <https://mojaafrica.net/en/resource/tanzania-education-and-training-policy-2014-2023-edition>
- NCDC (2020). Low Secondary Curriculum - Curriculum Framework. NCDC
- Ngatia, A, (2024, Jan). Kenya: Education Country Brief. <https://www.iicba.unesco.org/en/node/101>
- NPA (2020). THIRD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III) 2020/21 - 2024/25. NPA.
- Orinde, Hillary (January 3, 2019). "The abcd of the 2-6-6-3 education system". The Standard.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1-05-04. Retrieved 2021-05-04.
- Owino, C. (1997). Vocationa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in Kenya and Tanzania: A comparative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Kenya. Moi University
- Policy Forum (2024). Revamp In The Tanzania Education Sector. <https://www.policyforum-tz.org/news/2024-02-08/revamp-tanzania-education-sector> (Submitted by Web Master on 8 February 2024)

- S. Belluci, M. Katumanga, E. Otenyo. 2007. “Political” versus “civic” education in colonial and independent Kenya, pp. 1.
- Sifuna DN, Obonyo MM. (2019). Competency Based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in Kenya-Prospec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Journal of Popular Education in Africa*. 2019;3(7):39-50.
- Sifuna, D. N. (1990). *Development of educational in Africa: The Kenyan experience* Nairobi. Initiatives and publisher Ltd.
- Tamisemi (2024) Basic Education Data 2021. <https://www.tamisemi.go.tz/singleministers/basic-education-data-2021>.
- Tanner, D. and Tanner, L. (1995)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New Jersey: Prentice Hall.
- Tanzania MoES (2023). *The 2023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MoES.
- Tanzania MoEST(2023b). *Curriculum for Primary Education, Standard I-VI*. Tanzania Institute of Education.
- Tapiwa, V. et al (2023). *Global Citizenship and Southern Africa Liberation History Education in Southern Africa A 21st Century Socio-legal Perspective*.
- The Government of Uganda (2013) .*UGANDA Vision 2040*.pdf
- Uganda Bureau of Statistics (2023). *2023 Statistical Abstract*. Uganda Bureau of Statistics.
- UNESCO (2021). *Global Citizenship and Liberation History in Secondary Curricula in Southern Africa: Summary report on the findings of a desk review*. UNESCO.
- UNESCO (2023). *SDG 4 – Country Profiles Uganda*. https://uis.unesco.org/sites/default/files/country-profile/Uganda_SDG4-Profile.pdf
- UNESCO. (2014). *Africa Sources and Resources for a Culture of Peace*. Retrieved from <https://www.clingendael.org>
- UNICEF (2024). *DATA MUST SPEAK - Unpacking Factors Influencing School Performance in Mainland Tanzania*. UNICEF.
- UNICEF (2024).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Education in Ugand*. UNICEF.
- Wahyudin, D. (2018). *Peace Education Curriculum in Contex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2, 21-32.
- World Bank. (2014). *Education for All*. Washington DC: World Bank.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부 록

[부록 1] 인터뷰 요청 및 조사지

Interview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er in Kenya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My name is Hwanbo Park and I am a professor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quest of UNESCO APCEIU, we are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er Proje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nd teacher education to establish a GCED cooperation center in Kenya.

As GCED was adopted as a global education agenda, demand for GCED has constantly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growing needs for GCED, APCEIU seeks to strengthen GCED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TEIs) in partner countries by designating GCED Cooperation Centres (GCCs). It is based on APCEIU's experiences of active cooperation with various partners. Against this backdrop, APCEIU is investigat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GCC in Kenya.

The purpose of this interview survey is to ask for your opinion o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GCC Kenya. This interview survey will be used as a baseline data for selecting suitable institutions to achieve the project goal of improving teachers' GCED capacity and expanding GC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CC in Kenya.

This survey will take only 10 minutes. Your opinions will not be disclosed and will be used exclusively for feasibility study only. Meanwhile, your participation in this survey is voluntary. No direct rewards are provided. However, by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your answers would help significantly to implement the GCC project.

Kindly please write down your comments. Your cooperation would be highly appreciated.

If you require any information about this questionnaire and any problem is raised in the middle of research, please contact to the person below.

Hwanbo Park, Ph.D.

Contact

Researcher: Lilian Mora(ongeralilianm@gmail.com)

1. National level

1.1. Doe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correspond to partner countries' education policies and beneficiaries (teacher and learners)' needs?

1.2. What policies has the Kenyan government tried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schools?

1.3. How does the Kenyan government mobilize and use (allocate and manage) financial resources to implement this policy or strategy plan?

1.4. What is the main issu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GCED-related policies and strategies?

1.5 What is the main issue regarding the teacher education for improving GCED capacity?

1.6. Are there any similar projects implemented in relation to the GCED?

Project title:

Donor / implementing organization(s):

Total Budget and Funding sources:

Project Period:

1.7. Is there any overlap with other projects? If there is, please describe them.

1.8. Which institution do you think is best suited to strengthen GCED-related teacher education and expand GCED in Kenya? Please describe the reason why.

1.9. From your perspective, what a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a GCC centre in a proposed institution?

1.10. If you have any opinions or comments on the GCC project, please describe it.

2. Institutional level (face to face Interview)

1. Ar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related concepts mentioned in the vision, values, and goals of your organization?

2. 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ject being planned/implemented as a priority project among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your organization?

3. Have your organization ever participated in an ODA project or cooperation project of the Korean government?

4. Can we ensure organic linkage with various activities of stakeholders (UNESCO national committees, governments, civil society, etc.) within the partner country?

5. Is there a possibility that exist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partner organizations can be linked to UNESCO APCEIU'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ject?

6. Do you have experience implementing projects and policie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7. Do you have experience in teacher train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materials?

8. Are you considering institutional changes (improvements in laws, policies, curriculum, etc.) at all stages, including discovering and planning of GCED-related projec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9. Are you considering strengthening the human capacity and changing the awareness of project participants at all stages, including discovering and planning of GCED-related projec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10. Do you have or have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 physical space necessary to carry out the collaborative project?

11. Do you have the personnel with relevant experience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of the collaborative project?

12. Do your staffs have the technical experience and capabilities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of the collaboration project?

13. Do your staffs have experience in planning, executing, and evaluating collaborative projects?

14. Does your organization have the finances and systems to maintain the outcomes of the project even after the project ends?

15. Does your organization have a strategic and realistic will to continue working with UNESCO APCEIU?

16. Are there any plans to continue activ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llaborative project with the UNESCO APCEIU?

17. Are your organization considering th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groups from the planning stage?

18. If you have any opinions or comments on the GCC project, please describe it.

Thank you very much

[부록 2] ADEA의 평화교육(ICQN on Peace Education, ICQN-PE)

출처: 박환보·이유리(2019). 아프리카 교육ODA를 위한 ADEA와의 협력방안,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6, 91-126.

- ADEA의 평화교육 ICQN(이하 ICQN-PE)은 2004년 6월 ADEA가 분쟁 이후 및 취약국가를 위해 개최한 장관급 회의 결과 시작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20개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은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국가 건설을 위한 매개이자 원동력으로서 각자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ADEA는 평화의 구축 유지, 증진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ICQN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ICQN-PE는 2009년 4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긴급 상황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교육장관 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2009년 9월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케냐를 리더 국가로 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ICQN-PE는 과격, 폭력적 극단주의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케냐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평화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ADEA 2016). 케냐 정부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내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다른 협력 파트너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공동체의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Kenya 2014).
- 2009년 9월 ADEA는 케냐 교육부와 협력하여 “평화를 조성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교육: 통합과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ICQN-PE의 첫 번째 회의를 케냐의 몸바사에서 개최하였으며, ICQN-PE를 중심으로 평화교육 전략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서 ICQN-PE는 교육 시스템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가치, 태도, 지식, 기술의 함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ICQN-P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시스템 내에서 평화교육의 실행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가 간 대화 및 파트너십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6년 6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교육, 복원성 및 사회적 결속에 관한 범아프리카 심포지움에서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리베리아, 말리,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등 13개국의 대표단이 성명서에 서명하였다(ADEA, 2016).

- ICQN-PE는 UNICEF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아프리카 아젠다 2063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강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ADEA, 2016). ICQN은 평화교육이 분쟁과 폭력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고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인식하며, 교육이 갖는 변화의 힘을 강조한다. 이에 ADEA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쟁점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ICQN 평화교육의 수립을 모색하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대화, 정책 개발, 효과적인 실천을 촉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ICQN-PE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평화교육 대화 및 계획을 이끌어 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과 관련된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실현가능한 개입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체적인 비전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특히 ICQN-PE는 분쟁 피해국을 비롯한 취약 국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평화의 증진은 분쟁이나 위기를 막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 ICQN-PE는 ICQN-MSE와 마찬가지로 케냐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시작했지만, 특정한 공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평화교육을 주도해 온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협력한 정책 포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의 공여기관들도 평화교육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CQN-PE가 ADEA 2017 Triennale에서 평화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하고 한국에 기반을 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초청하는 등,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고 있다.

RR-IGCED-2024-020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24년 11월 15일 1판 1쇄 발행

연구기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책임자 : 박환보 (충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임진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자문 :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연구보조원 : Ongera Lilian Moraa (충남대학교)

펴낸곳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번호 : 02-774-3956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A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operation Centres:
Focusing on East Africa